
한자 졸업요건 폐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02. 08 (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총학생회 '오늘'

목 차

1. 개 요
2. 응답 인원 현황
3. 한자 자격증 취득 현황
4. 한자 자격증 인식 현황
5. 결 론

1. 개 요

2012학년도 이후 중앙대학교는 한자 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졸업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자연공학, 경영 경제, 의약학 계열의 경우 한자급수 자격 3급 이상, 예체능 계열의 경우 한자급수 자격 4급 이상의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내 개설된 한자 강의를 2개 이상 수강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간적·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한자 해독능력 배양을 통해 학문탐구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과/부는 극소수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과/학부와 한자 능력이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한자 졸업요건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대신하여 졸업 요건으로 인정되는 ‘대학한문’ 강의의 경우에도, 강의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한자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졸업 요건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단기간의 공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쉽게 휘발해버리고 한자 취득으로 인한 실질적인 학문적 수월성 및 한자 능력 배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구의 변화와 함께 학생 사회 내에도 한자 졸업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한자 자격증의 실효성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한자 졸업요건의 존속이 가지는 의의와 목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이러한 고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자 졸업요건 폐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4,085명의 학우들이 응답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한자 졸업요건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의 한자 자격증 실

효성 결여와 학과 전공 지식과 한자 능력의 연관성 부족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위 결과를 토대로 학교본부에 한자 졸업요건 폐지 진행을 요구합니다. 본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바랍니다.

본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해주시오.

2. 응답 인원 현황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응답 인원 현황

1) 소속 단과대학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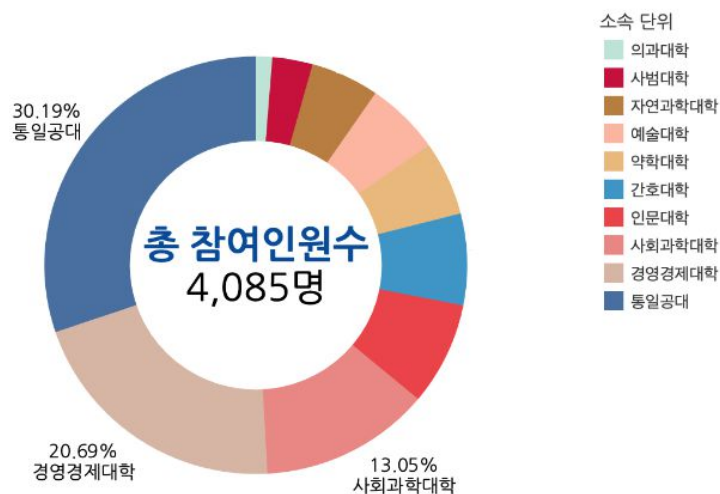


그림 1 소속 단과대학별 참여 인원수

2) 소속 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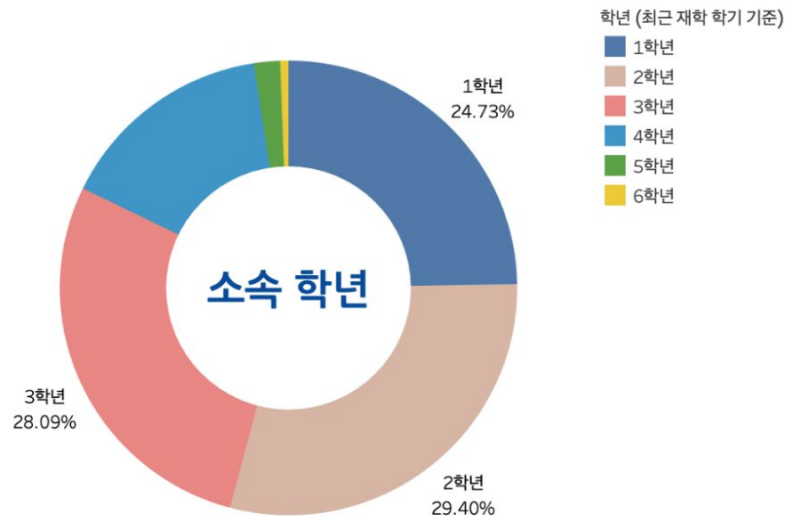


그림 2 소속 학년별 참여 인원수

3. 한자 자격증 취득 현황

요약

한자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른 한자 자격증 졸업요건 폐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설문조사에 '취득 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 응답 인원은 4,085명이며 한자 졸업 요건을 충족한 485명에 대하여 취급 급수, 기간, 이유에 대한 설문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 한자 자격증 취득 현황

1) 졸업요건 충족 현황 (총 응답자 4,0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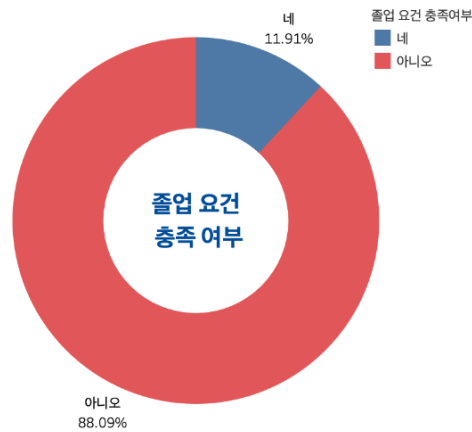


그림 3 졸업요건 충족 현황

	비율(%)	인원(명)
네 (한자 졸업요건 미충족)	88.1	3600
아니오 (한자 졸업요건 충족)	11.9	485

나. 한자 자격증 졸업요건 충족 인원 인식 조사 ('네' 응답자 485명 중)

1) 한자 자격증 취득 급수 ('네' 응답자 485명 중 446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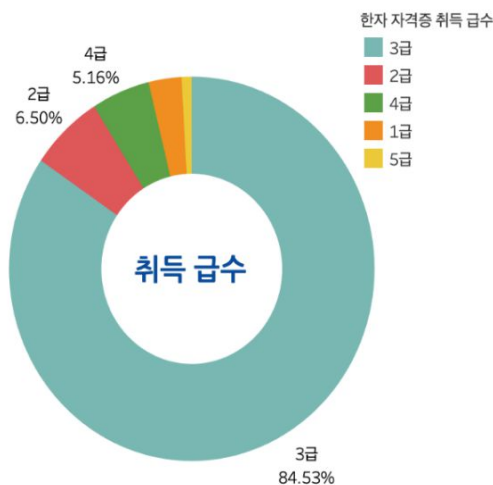


그림 4 취득 급수

	비율(%)	인원(명)
1급	2.9	13
2급	6.5	29
3급	84.5	337
4급	5.2	23
5급	0.9	4

*한자능력 인문, 사회, 자연, 의약학계열 3급 이상 / 예체능 계열 4급 이상이 졸업요건으로 인정

2) 한자 자격증 취득 학습 기간 ('네' 응답자 485명 중 45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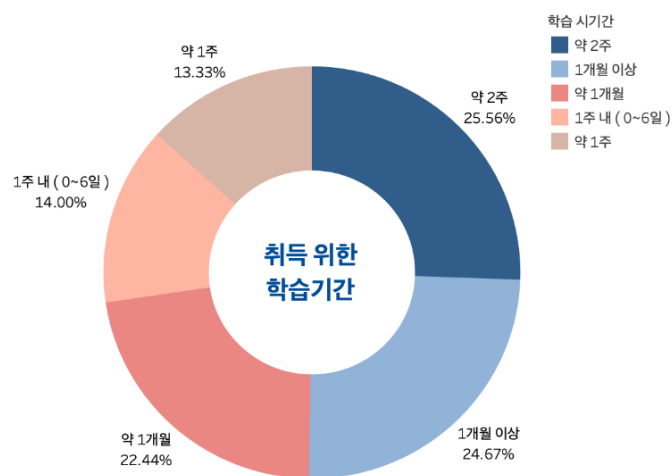


그림 5 취득을 위한 학습 기간

	비율(%)	인원(명)
1주 내 (0~6일)	14	63
약 1주	13.3	60
약 2주	25.6	115
약 1개월	22.4	101
1개월 이상	24.7	111

* '네' 응답자 485명 중 450명 이외 인원은 교내 개설 한자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인원 및 미응답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자 자격증 취득이 단순 회발성 지식으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한자 자격증 취득 이유 (복수 응답 가능, '네'응답자 485명 중 464명 응답)

1. 졸업 요건 충족 (434명, 93.5%)
2. 한자 능력 배양의 필요성(96명, 20.7%)
3. 취업용 스펙(36명, 7.8%)
4. 군대 내 자기계발(2명, 0.0%)
5. 입학 전 취득 (3명, 0.0%)
6. 한글 이해에 도움 (2명, 0.0%)
7. 한자에 대한 흥미 (1명, 0.0%)
8. 기타

* '네' 응답자 485명 중 464명 이외 인원 및 '기타' 인원은 교내 개설 한자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인원 및 미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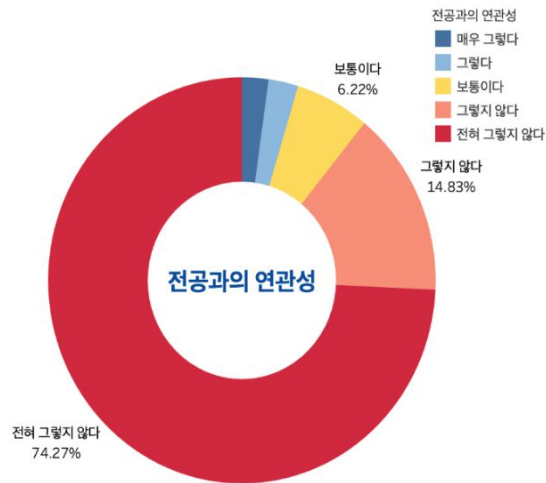
4. 한자 자격증 인식 현황

요약

한자 자격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자 졸업요건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약 90%의 학생들이 폐지에 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졸업요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및 고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 전공과 한자능력과의 연관성



	비율(%)	인원
매우 그렇다	2.2	79
그렇다	2.5	89
보통이다	6.3	225
그렇지 않다	14.8	533
전혀 그렇지 않다	74.3	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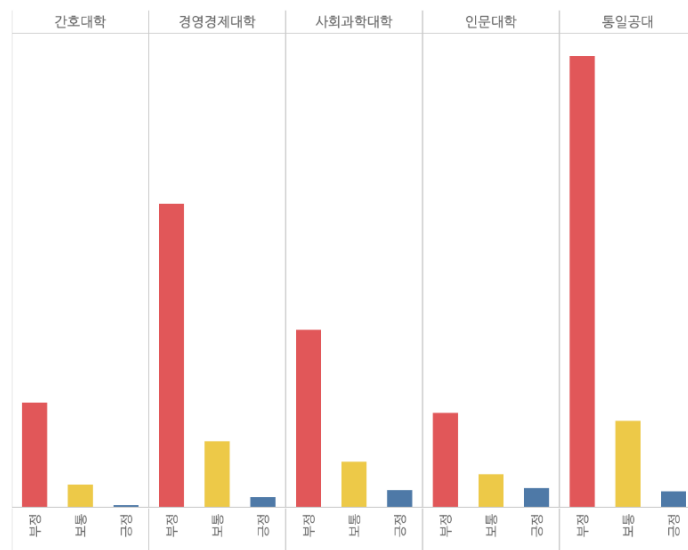


그림 7 소속 단과대별 전공과 한자와의 연관성 응답
(상위 5개 단위)

대부분의 단위에서 전공과 한자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통일공대와 경영경제대학 단위에서 부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나 한자 졸업 요건 인식 조사

1) [한자 졸업 요건 폐지 의견] 한자 졸업 요건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응답 4,0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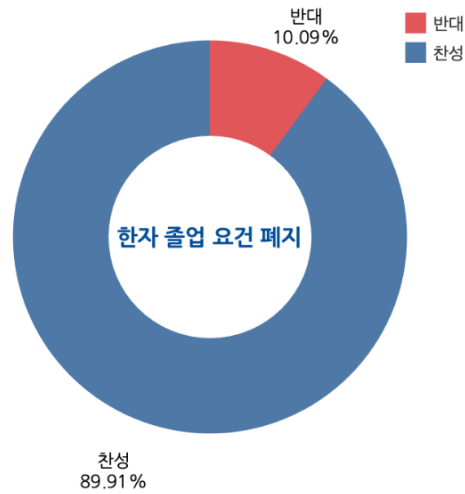


그림 8 한자 졸업요건 폐지 찬반 여부

	비율 (%)	인원 (명)
찬성	89.9	3673
반대	10.1	412

2) 졸업 요건 폐지 찬성 이유] 한자 졸업요건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응답 3,665개)

1. 취업시장에서의 한자 자격증 필요성 결여 (3043명, 82.8%)
2. 학과 전공 지식과 한자의 연관성 부족(2957명, 80.7%)
3.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심리적, 금전적 부담(2156명, 58.8%)
4. 한자 졸업 요건의 형식적 운영-교내 개설 한자 강의 수 부족 등(1493명, 40.7%)
5. 심층적 학습이 아닌 의무적인 암기로 인한 자격증(1명, 0.0%)
6. 진로와 무관한 자격증 (1명, 0.0%)
7. 한자 자격증은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 (1명, 0.0%)
8. 기타

3) [졸업 요건 폐지 반대 이유] 한자 졸업요건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응답 394개)

1. 학문 탐구 과정에 있어 한자 능력의 필요성 존재 (319명, 81%)
2. 한자 문화권 국가간 소통 능력 함양(208명, 52.8%)
3. 한자 자격증으로 인한 취업 시장 경쟁력 강화 (127명, 32.2%)
4. 한국어 어휘력 강화 (2명, 0.00%)
5.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명, 0.0%)
6. 기타



그림 9 졸업 요건 폐지 찬성 이유 워드 클라우드



그림 10 졸업 요건 폐지 반대 이유 워드 클라우드

나. 한자 자격증 자발적 취득 의사

1) [한자 자격증 자발적 취득 의사] 졸업 요건 폐지 이후에도 한자 자격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응답 4,06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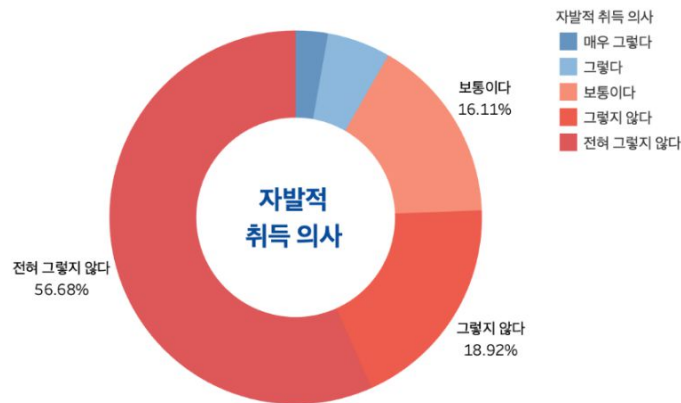


그림 11 졸업요건 폐지시 한자 자격증 자발적 취득 의사

	비율(%)	인원
매우 그렇다	2.8	113
그렇다	5.5	223
보통이다	16.2	659
그렇지 않다	18.9	768
전혀 그렇지 않다	56.7	2,304

5. 결 론

개인의 전공 및 진로 설계 과정에서 한자 능력 배양의 필요성을 느낀 학생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자신의 한자 학습을 선택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요건'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본인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타 자격증 및 전공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동시에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 - 2) 한자 졸업요건 폐지 찬성 이유로서 약 2156명의 학생들이 답변하였습니다.

한자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한자 능력 배양은 학생들의 학문 탐구 과정에 있어 그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자 문화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거나 어휘력 향상의 기반이 되어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역량을 제공하는 기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 학습 과정에서 한자 능력의 연관성 및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설문조사 문항 가. - 2) 한자 졸업요건 폐지 찬성 이유로 2,957명, 약 80%가 응답), 심층적 학습이 아닌 의무적인 암기를 통한 형식적인 자격증 취득이라는 점 (설문조사 문항 나. - 2) 한자 자격증 취득 학생 485명 중 339명, 약 75%가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라고 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한자 졸업요건의 필요성과 존속 의의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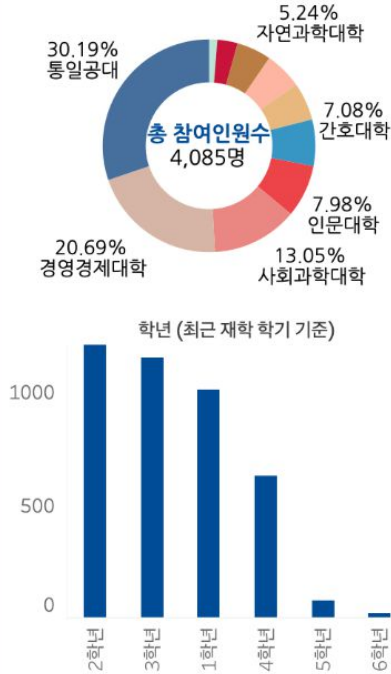
또한 설문조사 문항 나. - 1) 한자 졸업 요건이 폐지될 시, 약 75.6%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자 자격증을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졸업요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및 고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졸업 요건'이라는 명분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여러 부담과 형식적-단기적 교육만을 남기며 그 필요성마저 소실되어 가는 한자 졸업요건 폐지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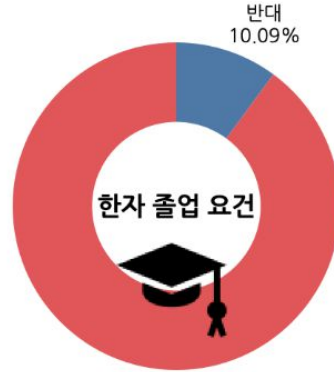
학교 본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총학생회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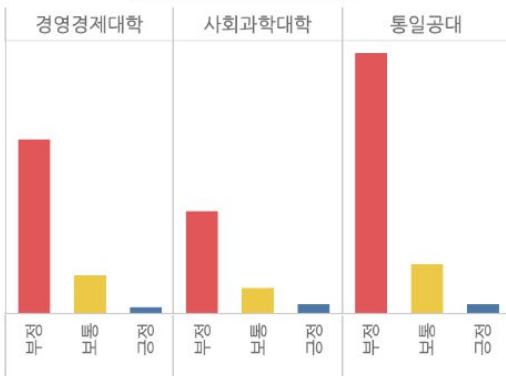
참여 단위 및 학년



총 **4,035명**의 학우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며, 향후 한자 졸업 요건 취득과 가장 관련이 많은 2,3학년의 참여가 높았습니다.



전공과 한자 간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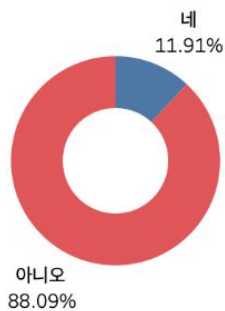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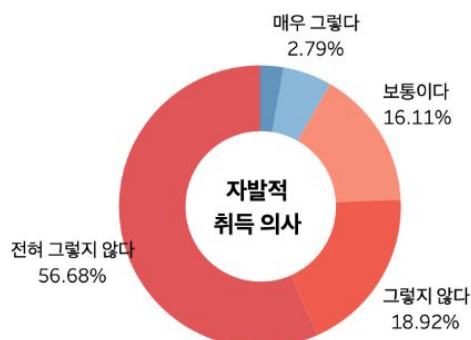


참여인원 중 **89.91%**가 한자 졸업 요건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공부와 학자 능력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취업 시장에서의 **실효성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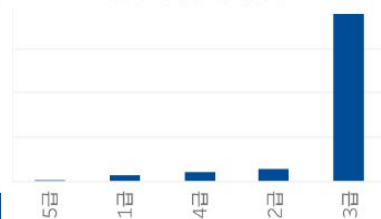
대부분의 단위에서 전공과 한자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통일공대와 경영경제대학 단위에서 부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자 졸업 요건 폐지 이후 **자발적으로 취득**의사가 있는가에 대하여 70%가 넘는 학생들이 **부정**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93.5%가 한자 자격증 취득 이유를 **졸업 요건 충족**으로 응답

한자 자격증 취득 급수



*인문, 사회, 자연, 의학학계열 3급 이상 / 예체능 계열 4급 이상이 졸업요건으로 인정